

“배움의 주도권은 학생이, 선생님은 동반·조력자”

전남 수업 대전환 '2030교실'

<3>여수화양초 '2030 학생작가교실'

전교생 24명 불과 놓어촌 작은학교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모델' 방점

한곳서 스케치·그림책·E-북 등 창작

타학교 학생·전문가 화상원격수업도

여수시내에서 멀찌개 떨어진 회양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4명에 불과한 놓어촌 작은학교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모두가 '학생 작가'다.

1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화양초는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로 '여수 학생작가학교'를 운영해 전교생이 매년 집필과 출판 활동을 하고 있다.

화양초는 이를 발판으로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독서·스케치·글쓰기 등이 가능하고 나아가 그림책과 E-북을 창작하는 '2030 학생작가교실'을 조성했다.



여수화양초 5학년 학생들이 '학생작가의 성장 고민 이야기'를 주제로 도원초교 5학년 학생들, 무아 작가와 함께 화상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

교실에는 다양한 그림책이 비치된 책장은 물론, 편안한 독서가 가능한 책상과 의자, 원격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는 노트북과 전자칠판,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전문가용 드로잉 기기인 와콤 등이 마련돼 있다.

'2030 학생작가교실'은 학생이 학습의 주체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과정을 계획·실

행하는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에 방점이 찍혔다.

이에 교사는 조력자 또는 동반자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과 배움의 깊이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화양초는 최근 '학생작가의 성장 고민 이야기'

를 주제로 5학년 1반 4명의 학생과 여수 도원초 5학년 4반 23명, 그림책 작가인 무아 작가가 참여

한 가운데 화상 원격 수업을 실시했다.

학생 작가들은 서로의 그림책을 공유하며 내용과 창작 과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다. 전문가는 학생작가를 격려하는 한편 조언을 했었다.

서상준(화양초) 학생작가가 만든 '바람과 함께 세계 여행' 그림책에 대해 조윤준(도원초) 학

생작가는 "노란봉지가 왜 주인공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서 학생작가는 "주인공이 노란봉지인 이유는 길에서(노란봉지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걸 보고 자유롭게 여행하는 모습처럼 보였다"고 답했다.

이어 무아 작가는 성장 격려를 통해 "각 나라의 랜드마크,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등을 글보다 그림으로 보여주고 퀴즈처럼 맞출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최형선 교사는 "학생작가의 성장을 공유하기 위해 두 학교의 학생들이 그림책을 창작하며 성장한 점을 돌아보고 발표하는 활동, 서로의 그림책 내용과 창작 과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활동, 전문가가 학생작가의 성장을 격려하고 발전에 대해 조언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운 교감은 "화양초는 소규모 학교로 도시의 학생들에 비해 배움의 여건과 정보가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30교실'을 조성했다"며 "이번 수업이 놓어촌 작은학교의 공간적 제약과 인적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며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선옥 기자

시교육청, 케냐 학교에 책걸상 기증

연말까지 13개교에 450세트 전달

광주시교육청이 아프리카 케냐 학생들에게 책걸상을 기증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기증은 지난해 한국 글로벌교육 컨퍼런스(Korea Global Education Conference)에서 맺은 인연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시교육청과 케냐 교육부는 교육 교류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협력방안 등을 모색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예비용으로 보유



하고 있던 학생용 책상과 의자 450여 세트를 확보, 지난 9월부터 아프리카 케냐 교육부 학교장 비생산부(이하 SEPU)에 배송하고 있다.

일부 책걸상은 수리 작업을 거친 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이블 238개와 함께 2차 배송할 예정이다. 기증한 책걸상은 연말까지 시모트햇초등학교(Simotwet Primary School) 등 7개 지역 13개 초·중등학교에 나눠 전달된다. <사진>

케냐 교육부 학교장 비생산부 조엘 마봉가(Joel Mabonga) 최고경영자는 "광주시교육청의 책걸상 기증으로 많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양국간 교육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책걸상 기증으로 케냐 학생들이 양질의 학습환경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광주교육은 세계와 소통하며 글로벌 교육 협력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인턴십 DAY' 성료

3학년 학생들 성과 전시 부스 운영

개미필름 등 23곳 참여…직업 체험

장을 소개하며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를 통해 3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성장을 되돌아보며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후배들은 진로 설계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최근 교내 강당에서 '인턴십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학년 학생들이 직업 현장을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한 '학교 인턴십 교육'의 결과를 선보이며 후배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교생 194명과 ▲개미필름 ▲뉴스포 츠코리아 ▲바이오씨앗협동조합 등 23개 인턴십 기관이 함께 했으며, 3학년 학생들이 인턴십 성과를 직접 전시·운영하는 '부스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부스에서는 인턴십 참여 학생들이 경험한 현

장을 소개하며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를 통해 3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성장을 되돌아보며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후배들은 진로 설계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름다운 상상(미용) 인턴십에 참여한 김우석(3학년) 학생은 "지난 1년간 인턴십을 통해 첫 사회생활을 경험, 큰 보람을 느꼈다"며 "대학 진학 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계양 교장은 "이번 인턴십 보고회는 학생들이 중심이 돼 지역사회 기관들과 함께 만들어 낸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과 연결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확장해 가고, 더불어 빛나는 행복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동강대 '건축·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성료

현장 설계·시공·안전 분야 작품 선봬

동강대학교는 "최근 교내 교수연구동 1층 글로벌존에서 '제4회 건축디자인&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 건축과와 RISE사업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에는 건축 현장과 밀접한 분야를 총망라한 9개 작품이 전시됐다.

작품은 ▲건설현장 추락·전도·협착 사고 예방 안전관리 방안 연구 ▲경제성 고려 타일 시공의 접착력 강화 방안 제안 ▲설계변경 관리 요인 도출·관리방안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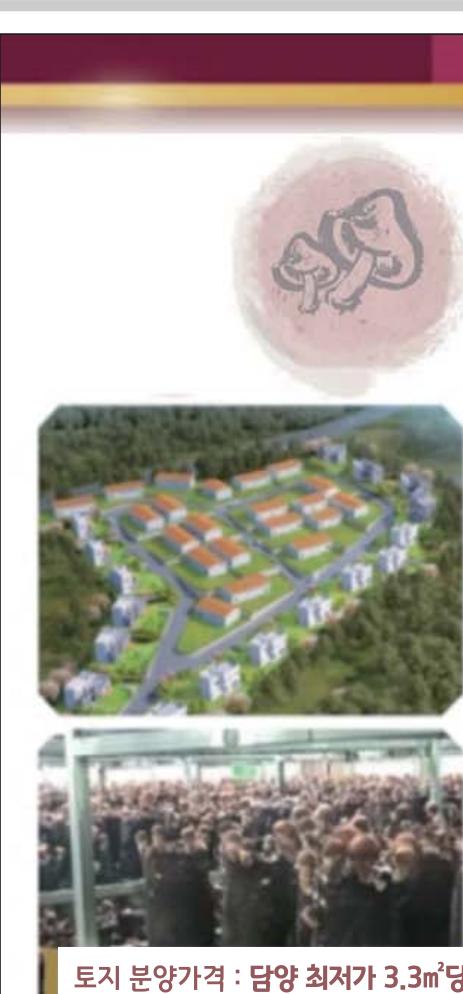
건축전을 지도한 연희정 교수는 "그동안 출업작품전이 설계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건축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고른 능력을 보여주는 콘셉트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송정석 학과장도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를 기획·설계·제작·발표하며 해결하는 종합 프로젝트형 수업인 캡스톤디자인의 목표가 잘 반영된 작품전이 됐다"고 말했다.

경진대회에서는 꿀잼도시 광주만들기 주제로 'The Prologue Gwangju. 비지니스 복합 호텔' 작품을 선보인 전인경(2학년) 씨가 총장상을 받았다.

한편 동강대 건축과는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주·야간 외에도 전공심화과정(4년제) 15명을 선발한다.

/박선옥 기자



수익형 전원마을 담양송이마을 토지분양

【국내 최대 스마트팜 재배단지】

스마트팜 설비로 누구나 참송이버섯 재배 가능 | 참송이버섯 재배로 매월 안정된 소득

체류형 쉼터 / 세컨 하우스 / 주말농장 / 개인캠핑장 / 동·식물 관련시설 / 창고부지 등 입주 가능

각 필지 8m도로 접. 250평 분양(전용율80%)
토목공사. 기반시설. 분양가 : 3.3㎡/45만원



1차 분양 입주완료

2차 토목공사 완료 - 선착순 위치선택



송이마을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31-6번지

☎ 062)222-0037 / H. 010-4323-5252